

야생화마을

고한읍 도시재생

이야기





고한읍
도시재생 이야기



고한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고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기 좋은 고한을 꿈꾸다.

1980년대 말 고한읍은 대한민국 석탄생산의 주요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석탄산업합리화를 통해 석유와 가스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서 고한읍은 폐광과 더불어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았던 탄광들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하나둘씩 고한읍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산골 가득 마을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숲으로 변화되었고, 고한읍 중심지를 제외한 마을들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는 빈집들이 늘어났으며,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몇 년간의 피나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민의 힘으로 쟁취하여 강원랜드라는 대체산업도 설립하게 되었지만, 주민과 마을 그리고 지역의 재생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사람들은 힘을 모아 지역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은 함백산의 야생화에 대한 주민들의 깨달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늘 곁에 있었던 고한의 자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함백산야생화축제가 해를 지나오면서, 주민이 준비하고 만들어 나간 축제가 단순히 행사만의 의미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하

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노력은 마을의 현재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함백산과 만항재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야생화를 테마로 숲길을 만들고, 마을과 골목길에서도 빈집과 노후주택들을 바꾸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몇 년동안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노력한 끝에 마을은 놀라보게 예뻐졌고, 더 예쁜 야생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골목길정원박람회를 주민의 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활동이 고원관광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노력으로 연계되어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자는 고한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헌신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봉사과 헌신의 과정에 대해 기록해주신 이해진 작가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야생화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마을은 석탄을 생산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듯이 이제는 아름다운 야생화와 예쁜 골목길, 그리고 백두대간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야생화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한우영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도시재생까지

고한 야생화마을의 발자취와 새로운 여정

고한읍 주민의 활동과 이야기를 엮은 고한 야생화마을 이야기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고한 야생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주민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형태와 질을 심대하게 바꾸어 놓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야생화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염원이 더욱더 쌓여가고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온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려운 시기속에서 폐허가 된 탄광마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까지 긴 여정을 지내온 주민의 첫걸음에 대한 결과물이며, 고한 주민들의 과거 활동을 되돌아보고, 잘한 것과 미흡했던 것을 가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 페이지의 시작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지 엄두가 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함백산야생화축제를 만들고, 올해로 16년을 이어온 것이 여정의 첫 시작입니다.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지역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마을 살리기” 운동으로 주민이 기획하고 앞장서서 마을의 변화를 주도한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을 리더의 노력, 주민의 협업, 그리고 주변의 연대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이루어내신 고한 주민의 발자취와 성과들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등의 정책사업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짐을 짊어지고 걸어오신 주민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여 경외심마저 느껴집니다.

이 다음 이야기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또 다른 마을 역사가 주민의 손에서 쓰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달콤하고 공허한 말들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 마을 일들입니다. 2024년까지 고한의 주민분들이 손수 고한 야생화마을을 “와글와글 사람들이 모이는 야생화마을 골목상권”, “새록새록 피어나는 아름다운 야생화마을 샵터”, “도란도란 모두 함께하는 야생화마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주민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그 아래에서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해 마을을 바꾸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주민들과 야생화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이혜진 작가님과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신 김재곤 팀장과 박혜경 팀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늘 고한읍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함백산의 야생화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들이 고한에 항상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신동훈

PART1	13	함백산야생화축제를 시작하다
야생화, 오롯이 피어나다	18	버려진 탄광에서 함백산야생화축제를 시작하다
	26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축제로 성장하다
	30	지역아카데미를 시작하다
PART2	37	기적의 골목을 만들다
야생화, 마을에서 되살아나다	40	빈집과 폐가가 늘어가던 골목길
	42	빈집으로 찾아든 우연
	44	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만들다
	46	주민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다
	50	골목이 희망이다. 마을에서 배운다.
	54	주민 스스로 시작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62	넓어지고 안전해지고 깨끗해진 골목길
64	물한마을에 찾아온 또 하나의 변화
66	폐가와 빈집! 100배 활용하기!
80	마을호텔 사업을 시작하다
86	밤에 피는 야생화, 밤마실꽃을 만드는 사람들
90	골목길정원박람회를 시작하다

PART3	93	"오즈로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	----	----------------------

야생화, 오즈로드를 꿈꾸다	96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
	100	현장지원센터를 열다
	102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다
	104	협업을 통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다

PART1

야생화,
오롯이 피어나다



더 나은 마을을 꿈꾸다

폐허가 된 옛 탄광마을,
카지노 옆 동네라는 말이 듣기 싫었던 주민들

함백산야생화축제를 시작하다

함백산 야생화 천년의 이야기

산사의 풍경소리에 문득 깨어난 세상.
그 세상에 어둠처럼 긴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아픈 상처도 커커이 쌓였습니다. 덧난 상처는 아물 줄
몰랐지요.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또 오고,
그러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사람도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오롯이 솟아 저 홀로 맑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함백산 바람으로 일어서 물과 구름으로 흐르던
함백산은 아픈 상처로 신음하던 기슭의
사람들에게 위안이고 벗이었습니다.
햇빛은 세상에 모든 것을 내어 주고도
푸른 얼굴로 곳곳이 버틴산.
그 산 함백산에 꽃과 나무와 들풀이 자랍니다.
눈발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는
이 곳 사람들에게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얼레지의 깊은 뿌리는 아들, 딸에 대한 질긴 모성입니다.
바람으로 피어난 바람꽃과 고드름을 먹고 자란 돌양지꽃,
저홀로 땀을 뿜내는 앵초도 함백산이 피웠습니다.
별무리에 뒤질세라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달맞이꽃과 물봉선,
동자꽃, 각시취도 함백산의 자랑입니다.
온 산기슭을 하얗게 수놓는 구릿대와 쑥부쟁이,
구절초도 눈길을 끄니다.
산속의 병정 투구꽃은 8월의 무사입니다.
용담은 멋진 가을의 선비이지요.
산비장이는 붉은 입술로 하늘을 유혹합니다.
함백산의 들꽃이 다시 세상을 엽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세상말입니다.

시.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기자







함백산 인근 탄광이 머물던 자리
엔 여전히 탄광개발의 흔적과 상
처가 남아 있지만, 함백산은 스
스로 치유하며 생명을 키워내
고 있다.





버려진 탄광에서 함백산야생화축제를 시작하다

1

2007년 방치된 삼탄 본관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최동순 고한읍 번영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함백산야생화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7년부터다. 2006년 6월 18일, 만항재 인근에서 하루짜리 이벤트로 야생화축제를 운영해 본 주민들은 다음해인 2007년부터는 열흘동안 행사를 치루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야생화축제의 처음은 당시 김수복 고한읍장의 아이디어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7년 고한읍번영회(회장 최동순)가 주도하고 고한지역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고한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당시 고한읍은 강원랜드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었지만 인구감소는 여전했고, 과거 무분별한 탄광개발로 인한 상



처가 채 아물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갓 시작한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폐광지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폐허가 된 탄광촌, 카지노 옆 동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뀌어 놓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그 시기, 김수복 고한읍장은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함백산과 만항재를 주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기에 고한읍



2

건물 여기저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 마을 부녀회원들이 준비한 식사를 기다리는 주민들

3

삼탄 본관 계단부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 최승선 화가와 동료들



1

삼탄의 상징이자 갯도작업의 심장
이었던 수갱타워 내부 전경

2

2007년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외부 전경

3

본관 내부에 방치된 서류와 기자
재들을 정리하여 전시하고 하고
있는 주민들

번영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1억여원도 순식간에 모였다. 주민들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후원하였고 기업과 단체의 지원도 뒤를 이었다. 금전적 후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장을 수리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발벗고 나섰다. 주민들이 야생화축제의 첫 무대로 선택한 장소는 놀랍게도 버려진 탄광이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64년 개광하여 2001년 폐광할때까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던 지역기업이었다. 버려진 탄광과 건물 내부는 당시 사용하던 집기와 가구, 장비, 서류 등이 마치 쓰레기더미처럼 군데군데 쌓여 있는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폐광이후 수년동안 방치되었던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야생화축제 준비가 유물보존의 장이 된듯 보이기






1

깔끔하게 정돈된 본관건물에는 주민들과 지역작가들이 손수 작업한 벽화와 전시물들로 채워졌고 이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다.

까지 했다. 이렇게 정리된 석탄산업의 유산들은 옛 탄광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전시되었고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줄수 있었다. 야생화와 탄광이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콘텐츠 사이에서 조화로움을 시도했던 함백산야생화축제의 테마는 "막장에 피어난 들꽃"이었고, 이는 미디어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고한읍의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함백산과 만항재, 그리고 야생화자연군락지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버려진 탄광이었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중앙정부의 관심 속에 지금의 삼탄아트마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삼탄에서 진행되었던 야생화축제는 이후 삼탄아트마인 조성공사로 인하여 만항재와 고한읍 시가지 일원으로 장소를 옮겨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주민 스스로 폐허가 된 탄광시설
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축제
를 개최하면서 각종 미디어와 관
심이 뜨거웠으며, 함백산야생화
축제와 삼탄을 전국에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1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 축제로 성장하다

1

삼탄아트마인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던 2011년부터는 다시 한양재로 본행사장을 옮기고 자연생태축제에 걸맞게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함백산야생화축제는 폐광촌이면서 카지노 옆 동네이던 고한읍을 야생화마을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들을 공동체가 공유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은 덤이었다.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주민도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야생화와 사진에 대한 조예도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한의 야생화축제는 전국적인 자연생태축제로써 주민들과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함백산야생화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고한구공탄시장에서 일어난다. 개막식은 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여는 행사라면 폐막식은 그동안 수고한 주민 스스로를 위한 잔치날이다. 축제기간 내내 고한시장상인회에서도 구공탄구이축제를 열면서 마을을 찾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벽화와, 경관조명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1

함백산야생화축제 중 고한시장상인회가 함께 펼치는 구공탄구이축제 진행 모습

지역아카데미를 시작하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1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던 주민들은 외부전문가와와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은 사북읍에 위치한 뿌리관에서 진행했던 2007년 강의 장면이다.

지역아카데미는 공개롭게도 함백산야생화축제가 시작되었던 2007년 무렵 시작되었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가 주최하였던 지역아카데미에는 당시 지역 사회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역 사회 역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더 많은 문물을 보고 듣고 배워야겠다는 의지와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고한의 함백산야생화축제와 사북의 석탄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혁신적인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지역아카데미를





통한 자극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진행된 장수 프로그램이었다. 매해마다 10여차의 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유명인사와 석학은 물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큰 어른이신 손병호 선생을 비롯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파

2

매년 40~50여명의 수강인원을 배출하면서 12년간 지속된 장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카오 세나토광장에서 해외견학에 참여한 주민들

2

마을만들기의 원조인 일본 세타가야구 사례탐방

3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견학

4

일본 유후인 주민들과의 교류회

5

완주군 마을재생사업 견학

리의 택시기사의 저자인 홍세화 작가, 도시재생 특별법의 초안을 설계하신 황희연 교수와 정석 교수, 돈의 인문학의 저자인 김찬호 교수 등 수많은 명사들이 강연자로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인연을 맺고 소통할 수 있었다.

지역아카데미는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례까지 견학하며 매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 갔다. 아카데미의 주요 관심사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관광산업, 인문학 등이었기에 마을만들기의 발상지인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를 비롯하여 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인 유후인 등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류하였다.



2



3



4



5



PART2

야생화, 마을에서 되살나다



더 나은 마을을 만들다

마을이 미래다
주민이 희망이다

기적의 골목을 만들다



4년전까지만 해도 18번가 골목
길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고
밤이 되면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피해다니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여행자들이 골목길을 찾아 추억
을 남기는 마을이 되었다.





빈집과 폐가가 늘어가던 골목길

1

2018년 1월, 고한18번가 골목길 풍경이다. 노후주택과 빈집과 폐가들로 어수선하다.

폐광이후 대체산업으로 설립한 강원랜드는 2000년 고한 박십지구 (현 하이원골프장) 스몰카지노 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여년동안 골프장, 스키장, 콘도, 특급호텔, 워터파크 등을 연이어 오픈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리조트단지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강원랜드의 직접 개발사업비는 3조원에 달했으며,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사업비 또한 이에 육박하였다. 영월~고한간 38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비 등 직간접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 자금까지 더하면 무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폐광지역에 투입된 셈이다. 그럼에도 지역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고한읍



의 경우에는 오히려 1995년 1만여명이던 지역인구가 2021년 현재 4,400여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과 폐가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골목상권은 급속히 붕괴하여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고한시장 인근에 위치한 고한 18리 골목길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었다.



2

탄광산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 18번가 골목길은 음식점과 술집들이 즐비하던 고한읍의 대표적 인 먹자골목이었다.



빈집으로 찾아든 우연

1

2017년 10월, 빈집을 매입하여
고한18리로 이사온 하늘기획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18리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를 꼽자면 고한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하늘기획이 2017년, 18리의 빈집 한채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이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하늘기획은 고한18리의 마을사랑방 역할을 담당하며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또 하나의 우연, 필연이 되다

두번째 변화는 공유오피스 이음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기획 맞은편 빈집을 지역청년 다섯명이 강원도의 폐공간공간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폐가로 변해가던 주택이 확 달라지게 되었다. 빈집에 불과했던 이 두 건물의 변화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2

2017년 12월, 하늘기획 맞은편 빈집을 수리하여 공유오피스를 창업한 이음플랫폼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만든다

1

24명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위원회에는 마을 이장과 반장, 마을활동가, 화가와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이 참여하였다.

또 하나의 우연은 필연처럼 다가왔는데, 바로 유명자 이장의 등장이다. 때마침 이장이 된 유명자씨는 새로운 마을 식구들과 마을재생에 대하여 의기투합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25일, 고함18리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을만들기 선포식을 열다

주민 조직을 만든 후, 마을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중 노후주택과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한읍 사무소(읍장 지근배)와 협력하여 주택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4월 27일, 선포식을 통해 향후 계획을 공유할 수 있었다.

2

마을만들기 선포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관계기관 및 단체



주민이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다

1

고한읍에서 나눠준 꽃모종을 공터에 심고 있는 주민들

2

주민들은 매주 수요일을 '18번가 클린데이'로 정하고 마을 구석구석 청소하였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더이상 청소할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18번가의 변화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이대로는 마을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에 주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확정된 예산은 전무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마을만들기 초기, 골목길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만해도 아무때나 집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기도 했고 일방통행인 골목길의 한쪽편은 항상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했으며 해야할 일들은 넘쳐났다. 빈 공터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는 읍사무소에서 나눠준 꽃모종을 얻어와 심었고, 뜻이 맞는 주민들끼리 매일같이 마을 안길을 쓸고 닦았



다. 또 쓰지 않는 계시대는 철거하고 담장도 허물어 마을쉼터도 만들었다. 빈집이나 다름없던 고한로타리클럽 건물 외벽엔 이해진 작가의 사진 전시장을 조성하는 등 작지만 알찬 변화들이 골목길 곳곳에서 일어났다. 큰 사업비가 투입된 마을사업을 한것도 아니었는데도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매일매일이 기적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3
방치된 계시대를 걷어내고 담장을 허물고 꽃모종을 심는 등 마을 일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했다.



마을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주부들

1

공예를 배우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가꾸가는 부녀회원들

수개월동안 진행된 마을만들기는 골목길의 표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주부들의 참여로 이어졌고, 부녀회원들은 마을 어른들이 가져다 놓은 화분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집이나 우체통 등을 만들어 장식하면서 마을변화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국일반점, 18번가 자장면데이를 만들다

자장면데이는 국일반점 사장님 부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마을 변화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식당 영업의 특성상 짬을 낼 수 없었던 이들은 매월 1회씩 휴무일을 택해 자장면 반값데이 개최를 제안해 온 것이다. 마을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익금은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2

국일반점과 마을위원회가 함께
운영한 "18번가 자장면데이"

3

자장면데이 운영 모습

골목이 희망이다. 마을에서 배운다.

1

2018년 당시에는 마을회관이 없었 18번가는 아카데미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골목길에서 진행해야 했다.

18번가 마을아카데미는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3.3기념사업회가 2007년부터 개최해 왔던 지역아카데미의 골목길 강의 버전이다. 딱딱한 교육실이 아닌 골목길에서 주민들이 퇴근해서 저녁을 드신후 마실 나오듯이 모여서 마을의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들로 구성했다. 강연자들에게 30~40분 분량의 강연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영화나 공연도 보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공부를 목표로 한 강연회가 아니라 공부를 핑계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골목길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배우다!

골목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마을 만들기 사업	2. 마을 만들기 사업	3. 마을 만들기 사업	4. 마을 만들기 사업
5. 마을 만들기 사업	6. 마을 만들기 사업	7. 마을 만들기 사업	8. 마을 만들기 사업
9. 마을 만들기 사업	10. 마을 만들기 사업	11. 마을 만들기 사업	12. 마을 만들기 사업
13. 마을 만들기 사업	14. 마을 만들기 사업	15. 마을 만들기 사업	16. 마을 만들기 사업
17. 마을 만들기 사업	18. 마을 만들기 사업	19. 마을 만들기 사업	20. 마을 만들기 사업
21. 마을 만들기 사업	22. 마을 만들기 사업	23. 마을 만들기 사업	24. 마을 만들기 사업
25. 마을 만들기 사업	26. 마을 만들기 사업	27. 마을 만들기 사업	28. 마을 만들기 사업
29. 마을 만들기 사업	30. 마을 만들기 사업	31. 마을 만들기 사업	32. 마을 만들기 사업
33. 마을 만들기 사업	34. 마을 만들기 사업	35. 마을 만들기 사업	36. 마을 만들기 사업
37. 마을 만들기 사업	38. 마을 만들기 사업	39. 마을 만들기 사업	40. 마을 만들기 사업
41. 마을 만들기 사업	42. 마을 만들기 사업	43. 마을 만들기 사업	44. 마을 만들기 사업
45. 마을 만들기 사업	46. 마을 만들기 사업	47. 마을 만들기 사업	48. 마을 만들기 사업
49. 마을 만들기 사업	50. 마을 만들기 사업	51. 마을 만들기 사업	52. 마을 만들기 사업
53. 마을 만들기 사업	54. 마을 만들기 사업	55. 마을 만들기 사업	56. 마을 만들기 사업
57. 마을 만들기 사업	58. 마을 만들기 사업	59. 마을 만들기 사업	60. 마을 만들기 사업
61. 마을 만들기 사업	62. 마을 만들기 사업	63. 마을 만들기 사업	64. 마을 만들기 사업
65. 마을 만들기 사업	66. 마을 만들기 사업	67. 마을 만들기 사업	68. 마을 만들기 사업
69. 마을 만들기 사업	70. 마을 만들기 사업	71. 마을 만들기 사업	72. 마을 만들기 사업
73. 마을 만들기 사업	74. 마을 만들기 사업	75. 마을 만들기 사업	76. 마을 만들기 사업
77. 마을 만들기 사업	78. 마을 만들기 사업	79. 마을 만들기 사업	80. 마을 만들기 사업
81. 마을 만들기 사업	82. 마을 만들기 사업	83. 마을 만들기 사업	84. 마을 만들기 사업
85. 마을 만들기 사업	86. 마을 만들기 사업	87. 마을 만들기 사업	88. 마을 만들기 사업
89. 마을 만들기 사업	90. 마을 만들기 사업	91. 마을 만들기 사업	92. 마을 만들기 사업
93. 마을 만들기 사업	94. 마을 만들기 사업	95. 마을 만들기 사업	96. 마을 만들기 사업
97. 마을 만들기 사업	98. 마을 만들기 사업	99. 마을 만들기 사업	100. 마을 만들기 사업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의 자리를 만든 셈이었다.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다는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장소를 골목길로 택하게 된 것은 마을 안에 마을회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18번가 아카데미의 큰 매력이었다. 지역사회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된 아카데미는 총9회차로 진행되었고 한차례의 국내 사례견학을 포함하고 있었다. 강경환 영화제작

1

골목길에서 하늘기획 담벼락에 스크린을 걸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밤이 깊도록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1

인천광역시 강화도 교동마을 제비집에서 주민 교류회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고한 주민들

소 '눈' 대표의 강연회를 시작으로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 전충훈 공동체디자인연구소 사무처장을 비롯해 마을재생과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마을의 변화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으며 사례 견학지로는 강화도 교동마을과 서울 경리단길, 연남동, 성수동 등지를 탐방하였다. 마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진행된 주민 교육프로그램은 실제로 큰 성과로 이어졌다. 연남동의 다세대 노후주택들을 활용한 카페와 레스토랑의 사례를 보면서 마을 어른들은 하얗게 여겼던 자신의 노후주택이 지금의 젊은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은 무조건 나쁘고 새로 지은 건물만 좋은 것이라는 편견을 깨버리는 경험을 함께 나눌수 있었으며, 견학 이후 노후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3



4



5



2

교동마을 주민 조직과의 간담
회 모습

3

성수동 견학시, 공정여행사 대
표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주민들

4

여행을 통해 친해지게 된 주민들

5

성수동 마을을 견학중인 주민들



주민 스스로 시작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1

노후주택 리모델링 첫 사례가 된
이씨 할머니 집의 시공 전 모습

2

시공후, 화사해진 주택

3

어르신일자리팀도 창고 철거와
페인팅 작업을 맡았다.

4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작업
에 동참하고 있는 주민들

골목길의 풍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후주택의 외관정비가 꼭 필요하였다. 아무리 집앞에 꽃이나 화분, 고가의 장식물을 가져다 놓는 다해도 기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18번가 마을위원회에서는 노후주택 10여 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고, 시범적으로 가장 상황이 어려운 주택 1개소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공모사업 탈락 등으로 인해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져서 주민들이 재료비 300만원을 모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각자 생업이 있었던 주민들이 시간 날때마다 작업을 하다보니 무려 한달이나 걸렸지만,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주민들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후주택이 예뻐지면 골목이 살아나요

1

행정의 예산지원을 통해 목수 등 시공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탄력을 받게된 노후주택 리모델링 작업

2

전문가의 도움으로 리모델링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씨 할머니집을 리모델링 하고 나니 주민들이 모았던 재료비는 모두 소진되었고, 한해동안 하기로 한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했다. 그렇게 사업비 확보로 애를 먹고 있을 무렵, 지근배 고한읍장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집당 재료비 500만원 정도씩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웠던 나머지 왈칵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업예산이 생기고 목수 등 전문가들까지 나서니 9개 주택의 리모델링은 불과 두 달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다음해인 2019년에도 10여개소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작업은 이어졌고, 골목길의 풍경의 급속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18번가의 리모델링 방식은 집주인도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집수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집을 단장하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식사나 음료라도 나누면서 정을 나누었다. 만약 18번가 주민들이 이 작업을 행정의 지원사업으로 이해했다면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다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얻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3

자신의 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사나 따뜻한
한 차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



1
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색채감이 살아난 마을 풍경

2
마을이 변하니 먼저 알아채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는 모습

3
18번가의 밤거리

4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후 비교









넓어지고 안전하고 깨끗해진 마을

1

이중주차로 위험했던 모습

2

인도와 골목정원 조성후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 풍경



시장인근의 상가골목은 항상 무단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고한 지역의 중심상권이어서 고객 차량이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주차장 부족과 무질서로 인하여 위험하고 복잡한 골목길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와 연결되는 길이었기에 노약자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체감하고 있던 일부 주민들이 상가를 다니며 일방통행과 인도설치 등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고한읍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한읍은 인도와 광차화분 설치와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할 수 있었다.





클린하우스를 만들다

쓰레기처리 공간이 없어서 항상 지저분했던 장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였다. 클린하우스는 큰 시설물은 아니지만 설치시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음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3

클린하우스 설치전후 비교사진

물한마을에 찾아온 또 하나의 변화

1

2014년 13리 골목길 모습

2

2019년 갤러리 조성 후 모습



13리, 물한마을은 고한읍 도시재생사업 지구에서 가장 아래 위치한 마을이다. 고한18번가를 비롯한 주변 마을들의 변화상에 자극을 받은 주민들 역시 마을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커지게 되었고, 2019년 3.3기념사업회가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다. 물한마을은 탄광시절 대형 탄광회사의 사택촌과 기숙사가 지어지면서 사람들이 유입되었으며 주변에는 회사로부터 사택을 분양받지 못한 광부들이 빈 터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3.3기념사업회는 이 마을에서 탄광마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갤러리





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역작가와 활동가의 페인팅과 오브제 설치 등으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13리 마을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1,500여실 규모의 대형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어 마을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2
작업중인 3.3재단 활동가

3
주택 벽면과 골목길에 설치된 전시된 지역작가의 작품들



폐가와 빈집, 100배 활용하기

빈집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다

1

빈집을 철거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모습

18번가가 알려지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정선군에서는 빈 집 두채를 매입하여 철거한후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낮 동안 골목길에 주차하는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 들어 여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15년째 방치된 폐가가 마을정원이 되다

1960년대 지어진 오래된 주택이다. 건물주는 신축을 원했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였기에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철거후 마을정원 조성을 건물주에게 제안하였고, 2019년 정선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2

폐공가를 철거하고 골목정원을 조성한 모습



문담은 동네슈퍼에 사진관을 차린 청년



1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사진관의
로 리모델링한 모습

은혜슈퍼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된 건물을 마을 청년이 2018년 강원도 폐광지역 폐공가 공간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들꽃사진관을 창업하였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 이혜진 들꽃사진관 대표는 잠시 쉬러 고향에 내려왔다가 우연한 계기로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운동을 함께 하게 되었고 골목길에 사진관까지 열게 되었다. 강원도 폐공가재생사업은 폐광지역 내 빈집 또는 폐가를 재생하여 창업하는 주민에게 첫째 1억원을 지원하고, 2~3년차까지 매년 심사를 통해 5천만원씩 추가로 성장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아주 특별한 지역재생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한지역의 빈집재생과 상권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침



채된 마을에서 빈집 하나가 상가로 재생되면 일단 보기싫던 건물이 예뻐져서 좋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서 좋고, 이 상점 덕분에 자연스레 골목을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마을이 활력을 되찾아서 좋다. 하지만 빈집 재생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꾸준한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2

폴킴 '여기어때' 광고촬영 모습

3

촬영중인 이혜진 대표



공예를 배우다가 카페를 차려버린 "수작"



1

음식점에서 카페로 변신한 '수작' 리모델링 작업 전후 비교

공예카페 수작 역시 2019년 강원도 폐공간 공간재생 공모사업으로 창업하였다. 이 건물은 원래는 음식점이었으나 골목상권 침체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카페 '수작'의 창업 배경에는 18번가에서 공예수업을 배우며 마을을 예쁘게 바꿔나가던 주부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재밌어서 공예를 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고 자신들의 작업실과 전시체험공간도 갖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비싼 우리나라에서 수공예로 돈을 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카페와 공방을 결합한 공예카페를 생각해내게 되었다.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던 2020년 1월



오픈한 카페 수작은 첫해에는 2명이 상시근무하였으나 2년차부터는 셀프카페로 전환하고 공예품 제작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인 마을호텔 초원점과의 협업을 통해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며 마을호텔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2
공예카페 수작의 실내 전경

3
마을호텔 조식 준비



철거 직전의 빈집, 셀프카페 1217이 되다



1

셀프카페 1217 외부 전경

신촌마을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하여 셀프카페 1217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촌마을은 행정구역상 고한 12리와 17리 두개의 리를 통칭하여 부르는 마을 이름으로써 셀프카페1217은 두 마을의 이름 숫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 건물 역시 2020 강원도 폐공가 공간 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로써 원래는 정선군이 일 반주택을 매입한 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이창호 17리 이장이 철거 대신 재생을 요청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구절초 등 야생화 꽃차 제조판매를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양초, 다육이 만들기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2



3



3

2
마을축제 등 마을행사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

3
가정집을 카페로 구성하고 전시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하였다.



마을회관이 된 고한로타리클럽



1

고한로타리클럽 회관건물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로타리클럽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였다.

고한로타리클럽 건물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재미난 이유가 있다. 18번가 마을만들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카데미도 해야 하고 견학단이나 손님들이 오시면 회의도 해야했지만 아무리봐도 그런 공간을 찾을수가 없었다. 마침 하늘기획 맞은편에 위치한 고한로타리클럽 건물이 눈에 들어 왔는데, 이 건물은 한달에 한두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건물이었다. 정기회의가 있는 날에만 한두시간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무상임대를 요청하였다. 고한로타리클럽은 회의를 거쳐 3년간 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었고, 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



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획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 12월 예쁜 마을회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마을회관에서는 기념품 판매, 공예수업, 회의실, 행사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3년의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된 지금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2

도시재생 사례견학단은 물론 공예수업장,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3

3개의 기관이 모여 공간 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신촌마을에 야생화 공방이 문을 열었다.



1

마을공터를 활용하여 경선군 고함읍이 마을공방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신촌마을은 한지봉 두가죽이다.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마을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12리와 17리로 나뉘져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 구분이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주민들은 반목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지만 두개로 나뉜 주민들을 묶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2017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17리 이장으로 선출된 이창호 이장은 내 마을, 니 마을 구분하지 않고 마을 일을 추진하였으며, 두개의 리를 하나로 묶어 '신촌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 주민 건의로 만들어진 공방의 이름도 두개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로 '신촌마을 야생화공방'이라고 이름 지었다.



2

공예체험, 학습공간, 마을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신촌마을 야생화공방



게스트하우스가 된 초원식당



1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해 문닫은 식당을 리모델링하여 객실 3개짜리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켰다.

초원식당은 고한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구이집 중 하나였지만 골목상권의 쇠퇴와 더불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다 2018년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에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제안한 마을호텔사업이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마을호텔 게스트하우스 1호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건물주이자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한 유영자 전 이장은 5년간 무상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마을호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글씨 예술가 강병인 선생의 손글씨 작품을 모토로 브랜드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주)세인트의 기본설계를 통해 2020년 1월 아담하지만 예쁜 게스트하우스를 완공할 수 있었다.



2

넉넉하지는 않지만 프론트와 공유공간, 객실 등을 갖춘 마을호텔 1호점을 만들었다.



마을호텔 사업을 시작하다



1

비가 조금 내리는 봄날 마을호텔
개장행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5월 19일, 마을호텔18번가 개관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방 3개짜리 작은 게스트하우스 1개소에 불과했지만 주민들이 기울인 수년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을호텔이 문을 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카지노 영향으로 늘어난 민박집이 마을에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마을상점들을 연결하여 호텔처럼 운영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강경환 감독부터 사업을 구체화시킨 김용일 세눈컴퍼니 대표, 감성 디자인으로 마을호텔을 설계한 김성중 (주)세인트 대표를 비롯해 점포주를 설득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승인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이 작은 마을호텔 하나에 모



두 담겨져 있었다. 마을호텔의 조합원은 총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골목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며 투숙객들은 회원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소정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이원리조트와 삼탄아트마인의 특정 시설을 이용할시 최대 50%까지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2

마을호텔 운영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교육을 마치고 공주 봉황재 마을호텔을 견학하였다.

누워있는 호텔



하이원리조트

마을호텔 18번가 숙박 이용 고객에게
하이원 리조트 부대시설(워터파크, 하이원 리조트외)
30%~40% 할인 제공

1 먹방꾸미

2 국일

4 마을회관

5 이음

7 누리한우촌

8 카페

10 구공탄구이

11 그린

13 예촌돌솔밥

14 고한



국일반점
이음플랫폼
아페수작
그린세탁소
고한시네마

- 3 들꽃사진관
- 6 하늘기획
- 9 영주이발관
- 12 고한방탈출게임
- P 공영주차장

14



고한시네마 | 전국동시개봉 최신영화
033-592-7053
고한10길 28-12
일반2D : 6,000원 / 3D영화 : 8,000원

15



삼탄아트마인 | 전시관
033-591-3001
함백산로 1445-44 50% 할인

16



함백산 야생화 | 만항재 해발 1330m
하늘숲정원, 바람길정원,
산상의화원, 야생화공원 무료

17



정암사(적멸보궁) 수마노탑(국보 제332호)
033-591-2469
함백산로 1410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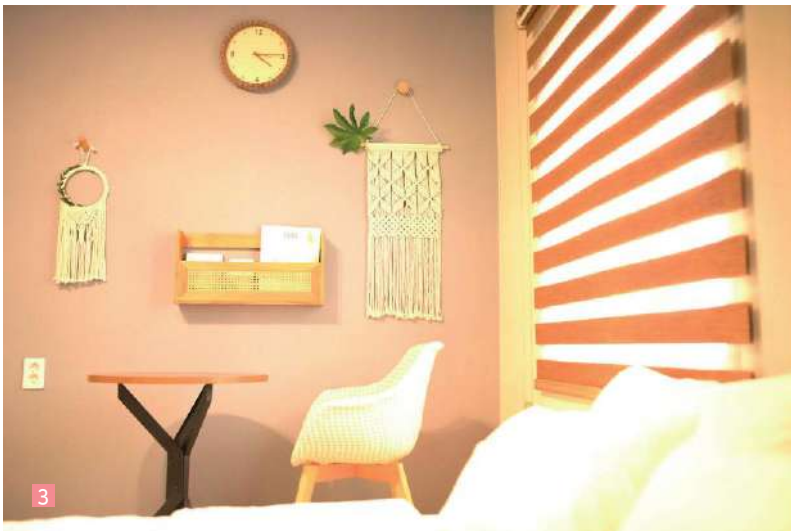
마을호텔 2호점이 탄생하다



1

기존에 운영중이던 해오름민박을 마을호텔로 리모델링하였다.

마을호텔 2호점은 이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업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한 사북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가 바로 옆에 있다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체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카지노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출입일수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민박 이용고객은 급감하게 되어 빈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 마을호텔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을호텔 2호점의 실내외 디자인은 1호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아 조성하였고 여행자들



이 편안히 쉬어 갈수 있도록 원목 느낌을 기반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마을호텔18번가 협동조합은 향후 5년 이내에 5호점까지 게스트하우스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보다 다양한 회원상점을 확보하는 한편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질 높은 여행편의성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1

마을호텔 1호점과의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리모델링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에 피는 야생화, 밤마실꽃을 만드는 사람들



1

마을을 장식하기 위해 직접 만든
밤마실꽃을 골목길에 설치하고
있는 주민들

밤마실꽃은 LED야생화공예품의 다른 말이다. 고한지역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야생화를 한지로 모양을 낸후, LED조명을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예품을 "밤마실꽃"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다. 밤마실꽃의 시작은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한읍장이었던 지근배 읍장은 야생화가 피는 기간이 끝난 이후인 겨울철과 밤에도 마을에서 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고민 끝에 LED야생화공예를 찾게 되었고 수공예 장인들을 모셔와 주민들이 배우게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30여명 넘는 주민들이 LED플로워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수공예품의 특성상



야외의 가혹한 실외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훼손됨으로 이를 보완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또 지나치게 비싼 제작비용으로 인해 일반인이 선뜻 구입하기에는 문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제작단가를 낮추고 사이즈를 줄이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상품화 전략이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

2

LED빛공예 2급 지도사 수료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



창고를 활용해 야생화공예 체험관을 만들다



1

밤마실꽃 전시체험장 외부 리모델링 전후 비교

밤마실꽃은 2020년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밤마실꽃 전시체험관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과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2021년 밤마실꽃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품개발과 체험활동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



2



2



3



2

밤마실꽃 체험장 실내 모습

3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전문가과
정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



골목길정원박람회를 시작하다.



1

서예가 강병인 선생이 골목길정원박람회의 오프닝 이벤트를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한 골목길정원박람회는 2019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골목길정원박람회는 사람을 불러 들이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는 아니었다. 마을만들기를 통해 골목길은 정돈되었지만 볼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야생화마을다운 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2년동안에도 쉬지 않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정원박람회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마을속에서 녹여내는 한편, 올바른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



한 전시, 체험, 공연, 교육, 플리마켓, 마을정원 조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06년 함백산 만향재에서 시작되었던 야생 화축제가 폐광촌에 불과했던 고한읍을 야생화마을로 거듭나게 했다 면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정원박람회는 진정한 야생화마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봄부터 가을까지 은은하게 조성된 마을정원을 살펴볼 수 있는 매력이다.

PART 3

야생화,
오즈로드를 꿈꾸다



더 큰 미래를 그리다

걸으면서 삶을 생각하다

**"오즈로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도



A.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		85.9 억
A1	아생화오즈로드	32.8억
마중물 사업	A1.1 아생화 산책로(13.5억) HW+SW - 수변산책로, 골목갤러리, 아생화산책길 등	
	A1.2 아생화 빛의거리(3억) HW - 루미나리에 거리조성	
	A1.3 아생화 골목길정원(13.9억) HW - 신촌마을, 마을호wel 18번기 골목길 특화디자인	
	A1.4 오즈로드 축제행사(2.4억) SW	
연계사업	D1. 정선군) 아생화마을 추진극장 조성사업(56.1억)	
	D2. 정선군) 아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38.2억)	
A2	아생화 6차산업 육성	10.8억
마중물 사업	A2.1 아생화수공예 사업화(6.8억) SW - 아생화수공예 서브거점, 무인판매시설, R&D 등	
	A2.2 다함께 빛의요정(4억) SW - 아생화 수공예 전문가 양성, 동아리 활동 지원	
연계사업	F1. 강원도 경제진흥원) 폐공가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사업	
A3	마을호텔 18번가 활성화	31.9억
마중물 사업	A3.1 마을호텔식당가 경관개선(2억) HW	
	A3.2 공영주차장 입체화(26.7억) HW	
	A3.3 마을호텔 베이커리 조성(3.2억) HW	
연계사업	E2.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5억)	
A4	구공단시장 활성화	10.4억
마중물 사업	A4.1 구공단 광장놀이터(4.8억) HW+SW - 쉼터라운지, 키즈놀이터, 체력존, 이벤트 행사 등	
	A4.2 구공단 음식공방(3.6억) HW+SW - 공유주방, 음식 특산물 개발, 창업지원	
	A4.3 고한사용설명서 스마트텔(2억) SW	

B.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47.6억
B1	아름다운 삶터	24.1억
마중물 사업	B1.1 아생화마을 디자인(1.6억) SW -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및 경관협정 체결, 주민교육	
	B1.2 노후주택정비(20억) HW - 주택정비 161호(슬레이트 42호, 집수리 142호)	
	B1.3 지장천 경관개선(2.5억) HW+SW - 하천축대 디자인, 아생화 씨앗독단 행사	
B2	안전 쾌적한 삶터	13.2억
마중물 사업	B2.1 안전마을 만들기(5.8억) HW - 울벽 및 연석계단길 정비, 노후 아케이드 개량	
	B2.2 스마트고한(7.4억) HW - 스마트가로등, 크린하우스 조성	
B3	행복한 삶터	10.3억
마중물 사업	B3.1 돌봄지원센터(1.7억) HW+SW - 돌봄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B3.2 아생화 마실방(6.2억) HW+SW - 노인교실, 동네마실방, 아생화공예 서브거점 등	
	B3.3 물한상회(2.4억) HW - 동네슈퍼, 동네카페, 아생화공예 서브거점 등	

C. ...		
C1	...	
마중물 사업	...	
C2	...	
마중물 사업	...	

오즈로드 기본개념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는 모든 이야기인 기본 서사 구조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들의 여정은 ‘구원의 도구’는 무지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도로시의 모험, 나아가 모든 모험의 의미입니다. 나아가 현재로부터 분리되어, 가족을 떠나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험의 낯설고 새로운 과정이 ‘진정한 나’를 발견시켜 줍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준 것과 같이

‘오즈로드’는 걸으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오즈로드의 정체성’입니다.



‘오즈로드’는 ‘오즈의 마법사’와 골목길, 산책길의 ‘길’을 의미합니다. 고한의 6개 마을의 골목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이 날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산책길을 걸으며 지나온 과거, 앞으로 삶, 근심, 가족, 연인, 자식, 부모님 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색할 것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지혜’, ‘따뜻한 마음’, ‘용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주제를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삶을 ‘걸으며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합니다. 오즈로드는 양철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허수아비의 ‘지혜로움’, 그리고 사자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열다



1
개소식 현판 제막식

2
박훈 교수에게 센터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최승준 정선군수

2021년 3월 25일,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센터가 고한시장상인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박훈 강원대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고한읍은 함백산, 정암사, 하이원리조트 등 유수의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어 매년 4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광객이 마을과 지역의 소비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한읍은 특화된 관광연계산업의 육성으로 고원관광지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노후 주거지와 노후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생활 및 경관 등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노후된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지로서의 경관을 고려한 도시 경관 디자인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고한 야생화마을’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고한구공탄시장 광장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마을별 설명회를 진행하다



1
마을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2
고한읍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1차 주민설명회

현장센터는 2021년 7월 16일, 고한읍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과 사업계획 및 현장센터의 역할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이날 무더위와 설명회 장소가 멀어 참가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별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여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다.



3

고한13리, 신촌야생화마을, 마
을호텔18번가, 고한구공탄시장
등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모습



협업을 통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다



1
새롭게 조성한 골목길 담장

2
조성전 모습

센터는 2021년 12월, 고한13리 골목길 일원 노후담장을 보수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였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고한읍 뉴딜사업주민협의체와 건축전문가,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고한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강원대학교는 2021년 9월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협약(MOU)을 맺고, 11월 말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한 마을호텔 18번가와 삼탄아트마인을 견학하여 현장답사와 특강 프로그램을 마친 바 있다.



3

센터와 강원대와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

4

해당지역 주민과의 실무협의

5

작업진행 모습



고한읍 도시재생 이야기

첫번째

2022년 05월 25일 초판 발행
2022년 09월 06일 개정판 발행

지은이 정선균
펴낸이 고한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편집 신동훈, 김재곤, 박혜경
글쓴이 김진용
펴낸곳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46
주소 033. 591. 9700
기획 들꽃사진관
디자인 하늘기획

이 책의 저작권은 정선군과 고한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